

길을 묻는 이에게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
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마음 안정되면 육신 자연스럽게 편안해져

15면에서 계속

사드립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양심삼야
가고 있으나 일거수 일투족을 실천으로
행함에는 미치지 못하여 항상 부끄럽습
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
니오라 2년 전부터 오른쪽 귀에서 웅하
는 쇠소리가 들렸는데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주인공이 해결해!" 하고 관
하다 보니 어떤 때는 크게 어떤 때는 작
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경계도 제 자신
이 만든 것이기에 해결도 제가 해야겠지
요. 공부할 하다가보면 가끔은 눈이 보이지
못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데 공
부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느끼는 경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가르쳐 주
신 말씀대로 "답답한 것도 담담히 답
답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믿어
넣고 있습니다만 묘자람이 많습니. 큰
방망이로 가르침을 주십시오.

광상이나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괴로움 망상 때문에 나
는 공부야 안돼.' 하지 말고, 답답
한 것이 나온다 해도 그것에 끄달리지
마세요. 팔쪽이 굵을 때에 한 술에서 방
울방울 지어 나오듯이 모든 것이 한
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망상이라고 이
름을 지어냈으니까 그렇지 어찌 그것이
망상이겠습니까? 수많은 중생들이 인연
으로 만나서 자기를 이렇게 다닐 수 있
게 움직여주는 마치 직인과 같은데, 어
떻게 그런 직인들을 망상이라고 멀리 하
겠습니까? 그러나 그 직인들에게서 어떤
한 말이 나오고 어떠한 답답함이 나오더
라도 그건 자기가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중생들이 답답해하니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말리지 말고 속지 말고
그 자리에 맡겨 놓을 때에 그것은 컴퓨터
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참입니다. 인
력을 다시 해보십시오. 전자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또 답답한 것 답
답하지 않은 것 할 것 없이 몽땅 거기에
맡기고 지켜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업과 습 녹이는 방법은...

업과 습이 틀어 아니겠지만 수행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업은 공한 것을 중독하면 해방되는데 습
도 또한 그런지요. 과거 미생물이 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억겁을 지나
오면서 생긴 습을 녹이기 위해 열심히
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
시해 주세요.

과거 미생물에서부터 현재까지
길들여온 습이 녹으면 자연히 업이
라는 자체가 소멸되는 거요. 좋지 못한
습을 자꾸 쌓게 되면 업덩어리도 커져서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관하다보면 모든 습이 녹아서 업의
젓바퀴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생명의 근본과 주인공의 관계

스님 안녕하십니까? 책에서 '나'
라는 것은 몸과 업이 담긴 혼백
과 영원한 생명의 삼합이라고 읽었습니
다. 그래서 스님 내라고 느끼는 것
은 몸과 의식 등 업이 담긴 혼백이며
지금 내라고 느끼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자에 스님께서 속
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이 몸
과 혼백이 저지르는 것들이 진정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나라는 욕심을
내고 원한을 품어 살아왔나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고 과거에 나
라고 생각하고 욕심내고 원한을 품은 결과
에서 나오는 하나의 환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이 속지 말라고 하신
것도 이 환상에 속지 말고 자꾸 근본에
맡기면 그 환상이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
만이 남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
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본도 될 것은 책에
써 있기를 생명의 근본을 주인공이라 한
다는 것이 있고 다른 곳에는 몸과 업과
생명의 근본이 합친 것이라고 돼 있
는데 어느 것으로 봐야 할까요?

주인공은 움직여주고 마음내는
거와 근본과 그렇게 세 가지가 한
데 합쳐서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가는 거
를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
두가 다 주인공이요. 여러분이 다 부처님
이시듯이 말입니다. 주인공은 시공을 초

월해서, 안에도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
거니와 밖으로도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속에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 있고, 천차만별의 의식에다 생
명들이 헤어질 수 없죠. 그런데 그 개체
하나가 세계와 같다 이겁니다. 몸 속에도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 한
공장이 만약에 천체되고 부도가 날다
이런다면 사람의 몸, 집 자체가 쓰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 냉정하게 판
단을 해보세요. 몸뚱이 자체가 나만이 사
는 내 것인가. 더불어 같이 살죠. 그러고
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
다. 여러분들이 수억겁전부터 진화돼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면
몸은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탐착하지 말아야 하거
는 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요. 이생 사는
동안 잠시 빌려쓰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
각한다면 굳이 탐착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
떤 것에도 걸림이 없이 끄달리지 마시고
좀 더 자유스럽게 살기 바래요.

가진 게 없는데 베풀라는 뜻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길이 갈래가
다른지 방향하는 바는 같다고 믿는 사
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남과 대화를 통

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지혜롭
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발전하는 과
정이라고 생각하고 뚝뚝뚝 걸어가 걸
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 생각이 중요하
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한 생
각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고통스러
워 하기도 하고 반면 공부의 재료로 삼
아서 더 간절히 관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편안함을 알았으면 사상으로 끄달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세요.

주인공 공부와 좌선의 차이

주인공을 깊게 믿는 상태에
서도 구슬이 단단해지고 좌선을 하
는 상태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으로 보아 두 가지 수행법이 다르지 않
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구멍
으로 에너지를 잡아넣으면 날을수록 그만
큼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도 다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었죠. 우리가
주인공에 맡기고 또 관하는 공부는 시간
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때고
어디서고 할 수 있지만, 좌선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고 또 일
어났다 앉았다 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다
르다는 겁니다. 진정한 좌선은 몸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좌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앉아서 많은 시간을
좌선했다 해도 앉아 있는 동안에 온갖
망상을 일으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
습니다. 앉았거나 일어났거나 일을 하거
나 움직이거나 매순간 끊어짐이 없이 마
음으로 좌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
다면 언제나 좌선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믿고 결혼 후회돼요

저는 불교신자이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일상에 매여 제대로 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늘 마음만 앞서고 있습니
다. 신랄한 제 마음을 다스려보고자 하
는데 솔직히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
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한지 삼년 되었
는데 남편과 떨어져서 주말부부 1주일에
한번씩 만납니다. 제 남편은 외아들이
고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
이 많으신 분입니다. 시누이는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고 시어머니도 그
형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 믿습
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결혼이 후

모두 한곳서 나고드는 줄 알아 걱정·생각 나온곳에 되놓고 관하면 마음 고요해 업 불을 자리 없어

은 그 모습을 자기 육신 속에 들여다보
면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과로 인해
서 바로 자기한테 인연이 돼서 자기 영
혼 근본과 더불어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태어날 때 바로 같이 헤어만인
한 개체의 덩어리가 되니깐요.
그리고 거기는 또 한 가지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작으나 크
나 많으나 적으나 따라서, 자기가 과거
에 살아온 그 차원에 따라서 이 몸 속
에 인과성이 더 많으나, 영계성이 더 많
으나, 업보성이 더 많으나, 이 다섯 가
지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으나
크나 따라서 다를 뿐이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으
니깐요. 알고 살고 모르고 살고 하는 그
런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컴퓨터와 같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입력된 것이 자
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팔
자운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

해 결국은 회사를 만들어 고용을 통한
배분을 업으로 여기고 종놈이라 생각하
고 일에 매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스님
의 불법집 맞권으로 어찌 스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까? 마는 흘러나오는 스님
의 자애로운 음성에서 저는 남의 뜻을
전하시는 큰스님을, 아니 지극히 작고 낮
은 스님을 받습니다. 한탄없이 흘러 들어
오는 물을 담는 바다를 봅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하시던 남은 남
이 아니라 바로 저 본인이었습니까? 불
과 인연 전에 IMF태풍에 사업 망하고 아
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저에게 나누고 베풀
라하시던 남이 저의 자성이요 주인공
이었나요? 스님, 이젠 알리고 하지도 않
지만 찾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스
님, 가는 길은 다들지라도 그곳은 한곳으
로 가는 것이지요? 저는 기업이란 땅을
일구는 소입니다. 사람을 먹여 살리는 소
의 운명인가 봅니다. 두서없는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



그림·최주현

잠시 빌려쓰는 몸에 탐착할 필요 있나요 빛물 구정물 다 받아들이는 바다 닮도록

하는 사람들은 팔자운명이 없어요. 나오
는 대로 거기다가 되 입력을 하니깐 앞
서서에 입력된 것이 없어지니까 팔자운명
이 불을 자리가 없다 이 소입니다. 그러
니 여러분은 진짜 이런 공부하는 인연을
한 번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몸에 탐착말아야 하는 이유

큰스님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다
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몸이 냄새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을
을 생각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몸도 탐착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왜 그러하
며 탐착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알려
주세요.

대다수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보
다는 육신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
각합니다. 어디가 조금만 아프거나
그러면 금방 병원에 간다 어디 간다 하
면서도 마음으로 문제를 생기기나 고장
이 나면 클라라도 그렇지만 안다해도 중
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나중에는 대처
를 못하고 우왕좌왕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동물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면 좀더 마음을 개발하고 정신적으로 한
차원 올라서는 작업을 해야함에도 불구
하고 보이는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을 쓰고 온통 그렇게 세 가지가 한
데 합쳐서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가는 거
를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
두가 다 주인공이요. 여러분이 다 부처님
이시듯이 말입니다. 주인공은 시공을 초

의 불교를 스님을 통해 만나게 됨을 감
사드립니다. 진정한 빛과 닦아 일체불과
중생을 구제하는 스님의 성품을 영입합
니다.

모두 어떤 일에서건 생각이 중요
합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고 생각하면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아
무 것도 없는 것이고, 풍조거리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량과 자비가 생길
겁니다. 묵묵히 땅을 일구는 소처럼 사
면서, 빛물이건 풍물이건 구정물이건 그
어떤 물이 흘러 들어와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바다를 닮도록 단단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공부처원이 높아지지 않을까

웃음 한 번 웃고 마음을 그대
로 두면 그대로 편안한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스님! 그런데 구슬과 하나
될 때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투철하게
알아야만 놓을 수 있듯이 주인공에 대한
믿음도 차원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넓어
져야 닦쳐오는 인연을 쉽게 넓히고 풀어
갈 수 있을 텐데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는 전진과 후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떠한 차원이냐를 문제삼기 이
전에 현재 내가 어느만큼 노력하고
정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저 높은 곳을 올려다보는
것보다는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전진과 후퇴를 계

회가 되구요. 뭐 이렇다할 이유는 없지만
자상하지도 않은 남편에 시댁문제는 너
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정말 수행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시댁에 맡기고
있는데 데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
이 안됩니다. 모든 것이 남편탓으로만 돌
려지고 그냥 억울하기만 합니다. 어리석
은 줄 알지만 제 마음을 정말 다스리기
힘듭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남편에 대한
믿음을 점점 잃어져가고 힘이 듭니다. 스
님의 지혜로운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서 안되죠. 부
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웬 줄 아닙니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그냥 상을
찌푸리고 그러면은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갈 뿐만 아니라 해결이 나질 않아요.
화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나중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보기 싫어지니깐,
왜 그렇게 되느냐, 남편이라는 거, 자식
이라는 거, 부모라는 게 전기로 치면 가
설이 돼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가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주치의 주인공을 왜 주인공이
라고 그러느냐 자부처라고 그러지, 주인
공이라고도 하고 참자기라고도 하고 불
성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 많습
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
각되는 게 뭐냐면, 항상 마음과 육체가
더불어 같이 될 사이 없이 살아왔나 돌
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라고
할 수밖에요. 자기 육신과 마음이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그럼 가족들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문제가 많죠? 뒷사람 행이고 아랫사람
이끌어다가가 힘들어서 애쓰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시대에는 아마 더할 거예
요. 그런 데도 쓰이는 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거수 일투족 다 쓰입니다. 그
서 지혜를 얻어라. 좀 발전을 해라. 실천
을 해봐라. 체험을 해봐라 이러는 겁니
다. 그래서 주인공에다 스위치를 누르면
은, 즉 입력을 한다면은 자식의 마음에게
지도 불이 들어오고 남편의 마음에도 불
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설이 돼 있으
니까.

그러니 마음에서 고장난 것을 접대기
인 육체가 그냥 허수아비만 꾸어들어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강제가 생겼다고 어떤법식
들이 있고, 뭐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고
야단들을 하고 학교 못 보내겠다고 야단
들을 하는데, 관하는 것만 가르쳐 줬더라
면 모든 것을 대처하고 나갈 수 있지 않
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우리
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나라도 좋아
질 겁니다.

그래서 여쭙하던 내가 그랬습니다. 지
금 우리 인생살이가 살얼음판을 걷고 가
는 형국인데 모든 것을 거기가 입력하
듯이 맡겨 놓는다면 마음도 편안할 것을

속에서 부아가 일어난다고 내던지고 악
을 쓰고 부아를 자기 몸속에서 살얼음
판에서 모닥불을 피워놓는 셈이거든요.
빨리 빠지게. 그리고 또 부아가 나서 막
꽂게치고 이럴 때, 그냥 한대 쥐어박고
싶고 그냥 죽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
때는 살얼음이 그냥 깨져버려요. 그냥,
깨져서 물에 풍덩 빠지게 되죠. 그러면
허덕하면서 날 살리라고 어떻게 빌고라
도 나오게 되면 한번 빠졌던 문제들이
얼마나 진퇴양난인지 모르죠. 그러가지고
자기 몸은 병들죠, 재산 없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배로 비유를 했
고, 여러 사람들도 다 육신 속에 배로 생
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신 속에 배로 생
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가는 중생들요, 그리고 주치의
중심 즉 주인공은 선장으로서 비유했습니
다. 그랬는데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나하
면 중생들이 만약에 부처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
고 아우성을 친다면 그 배는 뒤집히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선장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앉
았으면 가는 데까지 가면서도 아주 편
안하게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로
방편을 쓰고 저걸로 방편을 쓰고 해서
많은 설법을 해주셨고, 또 지금 내가 이
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해 놓으신 용어를 현재의 용어로써
대치한 것입니다.